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룩스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연말 이벤트	3면	극한의 도전 '셰프와 사냥꾼', 로맨스 드라마 '아기가 생겼어요' 1월 첫 방송	4면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	----------------------	----	---	----	-------------



① 동아미디어그룹 수습사원들이 12월 12일 국내 최대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를 배경으로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② 입사 첫날인 12월 8일 수습사원들이 자기소개를 진행하고 있다. ③ 서울 충정로 인쇄공장을 견학하고 있는 수습사원들. ④ 수습사원들이 룩스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기 위한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이한걸·경영지원국 인재문화팀·경영지원본부 인재문화팀

환영합니다, 동아미디어그룹 새 얼굴 수습사원 27명 입사… 12월 18일부터 현장으로

동아미디어그룹(DAMG)의 미래를 함께할 새 얼굴들이 12월 8일 입사했다. 동아일보 기자 7명, 채널A 기자 10명, PD 6명, CD 4명 등 총 27명의 수습사원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공통·직무 교육을 받은 뒤 18일 현장에 배치됐다. 이번에 입사한 동아일보와 채널A의 수습사원 27명은 8월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약 4개월에 걸친 채용 과정을 거쳐 합격했다. 직군별로 서류와 필기·과제·면접 전형을 거친 뒤 6주간 현장 실습을 진행했다. 이후 최종 면접을 거쳐 DAMG의 새로운 식구가 됐다.

룩스 콘텐츠·생중계 이벤트 기획 프로젝트 진행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DAMG 수습사원의 공통 교육 프로그램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강의를 추가했다.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 설치된 국내 최대의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UX)'와 관련된 다양한 강의와 실무 실습이 올해부터 시작됐다. 신입 사원들은 룩스 사업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고, 경영전략실 소속 박정서 시빅스팀장과 김상하 X-스페이스팀장은 룩스를 활용해 진행된 다양한 이벤트들을 소개했다. 수습사원들은 강연을 통해 룩스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룩스에 송출될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중계 이벤트를 구상하는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콘텐츠 기획 및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관점에서 사고하는 교육을 시작한 것. 또 프로젝트 과정에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활용한 영상 제작 교육도 포함됐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습사원들은 "상상한 아이디어를 실제 영상으로 구현하며 성취감을 느꼈다", "룩스의 생중계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커다란 자극이 됐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공통 교육 프로그램은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뿐만 아니라 상암DDMC, 충정로사옥 등 DAMG의 콘텐츠 거점을 오가며 진행됐다. 직군별 교육으로 전문성 키워 15일부터 17일까지 이뤄진 직무 교육은 동아일보 기자, 채널A 기자, PD 및 CD가 나뉘어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현장 배치 전 알아야 할 필수적인 업무 지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동아일보 수습기자 직무 교육 중에선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이어진 김호경 편집국 뉴스룸기획팀장의 '빨간펜 기자 강의'가 큰 호응을 얻었다. 수습기자들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사 쓰기 방식을 실습하고 첨삭을 받으며 실전 감각을 키웠다. 채널A

수습기자들은 서상희 미러클럽 기자로부터 총 3차례의 강의를 통해 영상 뉴스 취재, 제작, 편집 실무를 배웠다. 채널A 수습PD 및 수습CD는 직무 교육 첫날 각종 디지털 플랫폼을 넘나들며 새로운 매체와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비즈니스 방식을 집중적으로 교육 받았다. 이어 이틀간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촬영 및 편집 기법을 학습하면서 일선 현장에 나설 준비를 갖췄다. 송연진 경영지원국 인재문화팀 매니저는 "올해 교육은 수습사원들이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새로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배치 후에도 실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룩스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연말 이벤트

크리스마스 영상, 사랑의 온도탑, 신년 카운트다운 등 콘텐츠 선보여

국내 최대의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XX)가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영상과 ‘사랑의 온도탑’ 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신년 맞이 카운트다운에는 광화문 인근 미디어 사이니지와 함께 동시 송출 콘텐츠를 선보이고, 룩스를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색다른 이벤트도 펼쳐진다.

연말 시즌의 시작을 알린 콘텐츠는 12월 1일 공개된 크리스마스 영상 ‘산타의 마법 같은 출근길’이다.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외벽을 거대한 굴뚝으로 표현한 이 콘텐츠는 산타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물을 챙겨 굴뚝 밖으로 나서는 여정을 담아냈다. 굴뚝을 빠져나온 산타가 루돌프와 함께 떠나면 그 뒤로 화려한 불꽃 축제가 펼쳐진다. 이 콘텐츠는 매시간 정각을 포함해 하루 네 차례 청계광장을 밝히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또 12월 한 달간 룩스에는 희망나눔캠페인의 상징물인 ‘사랑의 온도탑’이 3D 미디어아트로 구현되고 있다. 사랑의열매가 연말연시를 맞아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실물 온도탑을 채널A B&C가 직접 미디어아트로 제작했고, 곡면 전광판 부분에는 온도계의 온도가 서서히 차오르는 모습을 구현했다. 김도형 동아일보 AD본부 룩스기획팀 차장은 “광화문광장에 매년 온도탑이 설치되는 점에 착안해 사랑의열매 측에 룩스와 연계한 온도탑 미디어아트를 제안하게 됐다”고 했다.

연말 광화문 일대 주요 미디어 사이니지와 함께하는 공동 이벤트도 준비 마련됐다. 12월 서울 윈터페스타 개막식에서는 룩스와 일민미술관 전광판 등 총 9개 전광판이 동시에 영상을 송출했다. 이어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에는 광화문 일대 사이니지가 함께 신년 카운트다운을 진행한다. 카운트다운 후에는 새해 소망 영상과 ‘말의 해’를 상징하는 미디어아트가 상영되며 광화문을 밝힌다.

룩스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는 광고 역시 다양한 형태로 제작 송출되고 있다. 대만관광청은 룩스의 거대한 규모에 착안해 여행 가이드북을 컨셉으로 한 광고를 시작했고, 글로벌 샴페인 브랜드 페리에 주에는 2026년 신년 캠페인 광고를 룩스로 선보이고 있다. 김상하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팀장은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이라는 상징성에 압도적인 규모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룩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도 새로운 영상과 이벤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포켓몬코리야와 함께 진행하는 참여형 이벤트 ‘룩스와 함께 잉여킹 노래 맞추기’도 시작된다. 룩스 화면에 등장하는 포켓몬을 촬영해 ‘#잉여킹룩스’ 해시태그를 달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콘텐츠인 포켓몬과 룩스의 결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1월 3일과 4일에 걸쳐 진행된다. 기획을 진행한 박정서 경영전략실 시넥스팀장은 “팬덤이 강한 포켓몬과의 협업은 룩스의 가치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브랜드, 지식재산권(IP) 등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뿐만 아니라 룩스의 운영 방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룩스와 일민미술관 전광판의 운영 시스템을 하나로 합친 ‘사이니지 통합 운영실’이 11월 19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통합 운영실의 가동으로 두 사이니지 간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송출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운영실 운영을 맡은 오준선 동아닷컴 뉴스테크팀장은 “룩스와 일민미술관 전광판의 ‘심리스 싱크(Seamless Sync)’ 연동으로 더욱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구득교



① 12월 한 달간 룩스에서 상영되는 ‘사랑의 온도탑’ 미디어아트가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② 15일부터 대만관광청의 대만 홍보 영상이 룩스에 관광 책자 콘센트로 구현된 모습. ③ 룩스와 일민미술관 전광판 운영 시스템을 합친 ‘사이니지 통합 운영실’이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7층에서 11월 19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사진= 사랑의열매 제공, 편집국 사진부 홍진환·신원건



AI 대가들이 전하는 ‘AI 시대의 혁신’

동아비즈니스포럼 2025 개최… ‘AI 에이전트 혁신 포럼’ 서브 세션도 신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동아비즈니스포럼 2025’가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AI 혁신, 이 시대 리더십의 새로운 좌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세계적 석학들은 한목소리로 “AI 도입 성공의 1순위 요인은 최고경영진의 깊은 이해와 헌신”이라며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조연설을 맡은 톰 데이브포트 미국 뱁스대 교수와

조지 프리드먼 지오폴리티컬퓨처스 회장 외에도 데이비드 에델먼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펠로, 마틴 리브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헨더슨연구소 소장, 레베카 카프 하버드대 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청중들에게 AI 혁신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

포럼 종료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95.5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포럼을 준비한 김정원 미래전략연구소

교육컨벤션팀 차장은 “참여 기업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학습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 포럼에 대해 청중들이 주신 피드백 또한 적극 반영해 앞으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포럼을 기획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포럼에는 처음으로 ‘AI 에이전트 혁신 포럼’이라는 서브 세션도 신설됐다. 팔란티어코리아, 세일즈포스, 데이터브릭스, 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담당자들이 직접 AI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김현지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장은 “첫 시도인 서브 세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의미가 크다”며 “구글 등 빅테크들도 AI 활용법을 고민하고 탐색하는 단계인 만큼, 기업들의 AI 학습 수요를 적극 반영한 사업들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전략연구소 X1팀 김윤진



동아비즈니스포럼 2025 행사 포스터

극한의 도전 '셰프와 사냥꾼', 로맨스 드라마 '아기가 생겼어요' 1월 첫 방송



① 채널A 신규 예능 프로그램 '셰프와 사냥꾼' 포스터
② 세계적인 요리사 '에드워드 리' 그리고 강인한 파이터 '추성훈'의 조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셰프와 사냥꾼' 티저 영상



① 채널A 신규 드라마 '아기가 생겼어요' 포스터
② 2026년 1월, 새롭게 선보일 드라마 '아기가 생겼어요'의 주연배우 최진혁, 오연서의 대본리딩 현장

2026년 새해, 채널A가 '도전'과 '사랑'을 담은 두 작품으로 시청자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전한다. 생존 미식 탐험 예능 <셰프와 사냥꾼>,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아기가 생겼어요>가 그 주인공이다.

셰프와 파이터의 콜라보

1월 8일 오후 10시 첫 방송되는 '셰프와 사냥꾼'은 야생에서 직접 확보한 식재료로 요리를 완성하는 과정을 담은 생존 미식 탐험 예능이다. '도시어부'를 7년간 연출했던 스튜디오D 2CP 구장현 PD가 "인간의 순수한 본능을 건드리는 새 콘텐츠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제작을 맡았다. 출연진 역시 사냥과 요리를

대표하는 '강인한 파이터' 추성훈과 '글로벌 톱 셰프' 에드워드 리가 가장 먼저 낙점됐다.

촬영은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Labuan Bajo)와 필리핀 부수앙가(Busuanga) 정글에서 옐로케이션으로 진행됐다. 구 PD를 비롯한 제작진은 "원시의 본능을 일깨울 수 있는 자연환경을 찾겠다"는 목표로 수 많은 곳을 검토한 끝에 두 곳을 무대로 정했다. 이어 제작진은 사전 답사 당시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원주민과 함께 사냥을 체험하며 프로그램의 구성과 시각적 차별화 포인트를 가다듬었다. 또 촬영 전 에드워드 리 셰프는 현지 식재료를 공수해 레시피를 준비했고,

임우일과 김대호는 수중 사냥을 위해 석달간 프리다이빙을 훈련하는 등 출연진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했다.

촬영 과정에서는 발리 화산 폭발로 인한 비행기 결항, 태풍으로 인한 입국 불가 위기, 바다 촬영 당일 발생한 지진 등 극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촬영은 무사히 마무리 됐다. 구 PD는 "사냥에 실패하면 채소로 끼니를 때우는 원치 않음 출연자들이 매 순간 생존을 걸었다"며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출연자들이 야생에서 어떤 재미를 보여줄지, 그리고 사냥에 임하는 이들의 진정성과 특별한 만찬이 완성되는 감동의 순간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

채널A의 새 드라마 '아기가 생겼어요'는 동명 웹툰·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로 하루의 일탈에서 시작된 두 남녀의 예기치 못한 '속도위반'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사랑과 책임, 선택의 순간을 현실적인 시선으로 조명한다.

책임감이 강한 재벌남 두준 역에는 최진혁, 일은 완벽하지만 사랑에는 서툰 희원 역에는 오연서가 캐스팅됐으며, 홍종현·김다솜 등이 합류해 원작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작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은 물론 각 배우들이 가진 개성을 더한 재미도 기대를 높이는 요소다.

'아기가 생겼어요'를 이끄는 스튜디오E 송수현 PD는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시청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며 "인물들이 마주하는 딜레마와 선택의 순간을 설득력 있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송 PD는 "촬영 전후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배우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호흡이 형성됐다"며 "이런 분위기가 작품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자극할 '아기가 생겼어요'는 1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0시 30분,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콘텐츠전략본부 콘텐츠밸류업팀 이석이, 정수민

채널A 개국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채널A가 12월 1일 개국 14주년을 맞아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와 상암 DDMC 로비에 포토월을 설치했다. 올해 포토월은 록스를 통해 송출되는 채널A 브랜딩 영상 속 우주선을 콘셉트로 꾸며졌다.

1~2일 양일간 광화문과 상암 사옥 로비에 스페셜 포토부스가 마련됐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진 응모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은 동료·팀원들과 포토부스를 찾아 사진을 남기며 개국 14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콘텐츠전략본부 콘텐츠밸류업팀 신지민



수상 소식

신재호 PD,
문화부 장관 표창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W>를 연출한 스튜디오E 신재호 PD(사진)가 12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 PD는 새로운 예능 장르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강경식 PD, 대전 AI 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



스튜디오D 강경식 PD(사진)가 11월 28일 대전 유성구 호텔 ICC에서 열린 '대전 AI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강 PD가 다양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수상작 <The unfaded>는 5분 분량의 단편 영화로 치매 노인을 소재로 가족의 사랑 이야기를 다뤄 호평을 받았다.

김승현·김예린 매니저 서울특별시시장 표창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김승현 매니저(왼쪽)와 신사업기획팀 김예린 매

니저가 12월 9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체육인의 밤'에서 서울특별시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승현 매니저는 '7979 서울 러닝크루', 김예린 매니저는 '서울 100K'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고진영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① 강인함 속 다정함 한 스펀. 인턴기
자 첫날 명함 귀퉁이에 적은 포부입니
다. 신입 기자로 첫발을 댄 지금도 같습
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겠
습니다. 아낌없이 가르쳐 주십시오.
② 댄서입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턴기자로 출근하다가도, 토요일이면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직접 짠 안무를
팀원들에게 가르쳐 주고 무대에 선 지
올해로 딱 10년입니다.



김다인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① 인턴 오티 때 본인의 포부 한 문장을
명함에 적는 활동을 했는데요. 저는 따
뜻함으로 변화를 만드는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냉소라
는 쉬운 길보다는 따뜻함을 잃지 않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 배우겠습
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② 다양한 종류의 음악 듣는 것을 좋아
합니다. 최근에는 밴드 롤러코스터의
'일상다반사'에 푹 빠졌습니다. 수록곡
'어느 하루'는 헤드폰 한 쪽에서 기타 반
주가, 다른 쪽에서는 노래가 나오는 게
일품입니다. 꼭 헤드폰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김도연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① 팩트체커이자 스토리텔러인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
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그것이 A시대
인간기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
고 생각합니다.
②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읽는 것을 좋
아했습니다. 대학생 당시는 소설을 직
접 써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글쓰기
근육을 단련시키는 겸 다시 소설을 써
보고 싶습니다.



신예린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① 초심을 잃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
다. 겸손한 자세로 취재하되 사회에 날
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자로 성
실히 성장해가겠습니다.
② 운동을 좋아합니다. 원래는 수영을
했는데, 입사 후엔 어떤 운동을 하며 체
력을 관리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다겸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① 언제나 경청하겠습니다. 도전을 두
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
는 동아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② 러닝, 등산 등 매주 운동을 하며 체
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동진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① '기록하는 자'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 모두를 들여다보는 기자
가 되겠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매순간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② 밴드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것을
좋입니다. 남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합
니다. 부쩍 추워진 12월 초, 올 겨울을
잘 보낼 방법을 고민하는 나날입니다.



한채연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① 기자의 쓸모를 증명하는 기사를 쓰
겠습니다. 기자의 꿈과 고민이 담긴 기
사를 위해 더 많은 현장을 누비고, 한
명의 이야기라도 더 듣고, 더욱 시간을
내어 공부하겠습니다.
②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발레, 요가, 테니스 중 어떤 운동이 좋을
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배솔찬 / 채널A
경영전략실 CD

① "안 되면 되게 하라" 첫 회사이기에
더 깊이 배우고자 합니다. 가슴속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일하며
성장하겠습니다.
② 영화 감상, 강아지 산책, 러닝, 축구
를 즐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늘
탐색하고 있어, 좋은 것이 있다면 추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수미 / 채널A
경영전략실 CD

① 복잡한 세상에도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겠습니다. 초보의 초심과 프로의 전문
성을 모두 갖춘 CD가 되겠습니다. 일은
항상 즐겁게, 콘텐츠는 더 재미있게!
② 명작이라고 불리는 옛날 영화를 보고,
제 시선대로 의미를 해석하는 걸 즐깁니
다. 다른 사람의 해석을 찾아보고 숨겨
진 의미를 아는 것도 큰 재미입니다!



임예은 / 채널A
경영전략실 CD

① 동아미디어그룹의 next를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디지털의 무한확장을
실현하는 CD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
② 산미 있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산
미카페 투어 중입니다. 제 최애 원두는
르완다 키운자힐스 레드버번입니다. 꼭
드셔보세요!



전선혜 / 채널A
경영전략실 CD

①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CD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변화를 이끄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춤추는 것을 좋아해 요즘은 원데이
클래스에서 새로운 춤을 배우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흥이 많은 성
격이라 배우는 시간이 늘 즐겁습니다.



김나현 / 채널A
스튜디오E PD

①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PD,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긍정적
인 마음으로 빠르게 배우고, 꾸준히 성
장하겠습니다!
② 축구 직관을 좋아합니다. 2026 북
중미 월드컵에서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순간을 기대하며 설레고 있습니다!



김영빈 / 채널A
스튜디오E PD

① 제 인생 예능은 굿피플입니다. 그 프
로그램이 탄생한 방송국에서, 그리고
그 예능을 만든 선배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누구보다 설레고 기쁘니
다. 저도 채널A에서 누군가의 인생 예
능을 만드는 PD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② 콘서트 관람을 좋아합니다. 최근엔
한로로와 장병준의 콘서트를 다녀왔습
니다. 요즘 들어 직접 악기를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 사
운드를 좋아해서 배우게 된다면 드림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정준 / 채널A
스튜디오E PD

① 책임감 있는 이야기꾼이 되겠습니
다. 시청자들이 흥미롭게 즐기면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책임
지겠습니다. 언젠가 지하철에서 누군가
가 제 프로그램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
는 장면을 마주치는 것이 꿈입니다.
② 스키장 개장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
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스키를 타
고, 올해는 스노보드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운동에도 관심을 넓혀보고자 합니다.



정외진 / 채널A
스튜디오E PD

① 늘 사람과 콘텐츠에 진심인 PD가
되고 싶습니다. 채널A 콘텐츠가 더 많
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② 채널A 합격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해서
즐거보고 있습니다.



이관우 / 채널A
스튜디오D PD

① 대한민국을 뒤흔들 예능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것이 저의 포부이자 목표
입니다.
② 보드게임을 좋아합니다. 같이 할 사
람 구해요~



이서영 / 채널A
스튜디오D PD

①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끊임없이 배
우며,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청자에게 공감과 희망을 주는 PD가
되겠습니다.
② 주토피아 2, 위키드, 국보, 아바타
등 지금 상영중인(예정인) 영화에 관심
이 있으며, 스타벅스 아이스 코코 말차
음료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김다정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①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라는 문
장을 끝맺을 때, 부끄럼 없을 수 있도록
언제나 진심을 담아 성실하게 취재하겠
습니다.
② 말차를 좋아해 요즘 등장하는 말차
떡볶이, 말차막걸리 등 새로운 말차 음
식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김선범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① 언론사 시험 칠 때 늘 채널A 콘텐츠
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 회사의 일
원이 되어 감회가 뜻깊습니다. 현장에
서 답을 찾아가며 채널A에 보탬이 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요즘 관심사는 결혼입니다. 꿈꾸던
직업을 얻은 만큼 빠르게 적응하고, 여
자친구와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할 계획
입니다.



김채현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① 한 번 더 궁금해하겠습니다. 많은 이
들이 다녀간 곳도 다시 들여다보고, 작
은 변화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채널A의
새로운 시선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
습니다.
② 스포츠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해외 축구를 챙겨보며 요즘 이슬이슬한
팀을 응원하고, 테니스를 다시 배우면
서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자 합니다.



노은수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① 북극 여행에 다녀온 뒤로 추위에 무
뎠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덥고 추
운 곳에서 발로 뛰며 취재하는 채널A의
동력이 되고 싶습니다. 늘 치열하게 문
고 단단히 기록하겠습니다.
② 명동의 속소를 옮겨 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당달이 매일 여행 중인 기
분입니다. 동아미디어그룹에서의 새로
운 여정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
고 있습니다.



손주영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① 사람을 위해,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
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다
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② 연애 프로그램 시청에 푹 빠져 있습
니다. 하트시그널 시즌 5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윤지유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① 대학 시절 채널A '티쳐스' 쇼츠에 출
연해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를 통해
시청자에게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도
움을 드리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저는 방탈출을 정말 좋아합니다. 흘
어진 단서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
에 희열을 느낍니다. 이 탈출 과정은 취
재와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로서도 그런 탐색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건희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① 채널A에서 첫 질문을 던질 수 있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채널A에 꼭 필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②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오래
두고, 함께 늘어갈 물건들을 고르고 있
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
지길 기대합니다.



이서우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① 매일 10km를 뒀던 열정으로 화사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시선
에서 질문하는 친근한 기자가 되는 것
이 꿈입니다. 6주 인턴 동안 직접 배운
것들을 제대로 해내어 회사에 믿음직스
러운 기자로 성장하겠습니다.
② 한겨울이 다가오면서 기차역, 공항
등에 자주 보이는 홀리스 사람들의 현
황과, 시민 또는 상가에게 주는 피해 등
이 요즘 관심사입니다. 아슬아 겨울에
모이는 자선단체 기부금이 실제로 어디
에 쓰이는지도 요즘 관심사입니다.



장진우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① 좋은 사람이 좋은 뉴스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아직 질문만 많은 신입이지
만, 겸손히 배우고 성실히 뛰며 '신뢰받
는 기자'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② 축구하는 까만 애라서 '줄라탄 이브
라히모비치'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글만 쓰느라 하여져 버렸지만,
예전의 줄라탄으로 돌아가 축구대회에
서 즐겁게 뛰고 싶습니다.



정서환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① 하나라도 더 듣고 하나라도 더 확인
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버린 기자가 되
겠습니다. 취재를 할수록 정보 확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라도 더'
의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②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제게는 동
아미디어그룹의 일원이 된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무엇을 했는
지 일단 사진을 위주로 정리하고 있습
니다.